

2020년 2월 23일 "(성경의 큰 숲 보기 26) 에스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겔 37:1-14)

<도입>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으로서 BC597년에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만명 중 한 사람입니다(설교 ppt 자료 참고). 하나님께선 에스겔의 사역을 통해 어떤 하나님이신 지를 새롭게 알게 하고, 앞으로 행하실 새 일을 듣고 소망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주님의 새 일을 알리는지 보겠습니다.

[1]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

에스겔서 구조:

- i. 1 장: 하늘의 성전을 목도
- ii. 1-12 장: 임박한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에 대하여
- iii. 12-48 장: 회복에 대한 약속
 - 12-35 장: 심판과 회복이 혼합
 - 36-48 장: 회복의 메시지(마른 뼈 환상)

2 장부터 유다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사건을 묘사합니다.

- i. 9:3 그룹(언약궤)으로부터 성전 문지방까지 이동
- ii. 10:18-19 성전의 동문으로
- iii. 11:23-24 성전 동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백성들은 성전이 신앙의 절대적 상징이며, 결코 무너지거나, 침범 당할 수 없는 성역이라 믿었지만 에스겔은 하나님 영광의 하늘 성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1 장) 하나님이 땅의 성전의 멸망을 허용하실 수 있음을 알고 전했습니다.

[2] 멸망과 파괴 - 심판의 결과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원하신 것은 사람이 창조의 질서를 따르고 조화와 하나됨을 이룰 때 부여되는 선함과 아름다움(사랑)으로 복된 세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순방향에 합당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율법을 가졌면서도 순방향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줄여 말하면, 욕망과 권력(각종 힘)에 대한 추구하고 집착(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욕망과 힘에 집착하면 마성적으로 창조의 역방향을 달리게 됩니다. 역방향의 삶은 무질서, 부조화, 즉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창조 전의 상태로 향하게 하고 결국 멸망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욕망과 힘의 추구를 포기하지 못했고, 이에 선지자들이 많이 경고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은 역방향의 질주를 놔두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놔두시는 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롬 1:24, 26, 28 참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때는 서서히 그 결과에 봉착하게 하고, 어떤 때는 긴박하게 진행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아닌 이상, 하나님은 어떤 심판 아래 있는 백성들이라도 창조의 순방향으로 돌릴 것을 결단/실천하면(회개하면) 크신 사랑과 긍휼로 기뻐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욕망과 힘의 추구를 반성하고 포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창조의 역질주의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2007년 금융위기, 세상 곳곳의 전쟁들, 위협을 경고했음에도 이 지경에 이른 코로나 19 사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분열시키고 이념적 공격으로 속이고 싸우게 하는 정치/사회 세력, 모두 욕망과 힘의 추구에 매달린 결과입니다.

그 누구도 창조의 역질주에 얼마든지 편승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나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런 위험 속에 있음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탄하고, 분노하거나, 누구를 탓한다면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 속에서 무엇이 피어나며 어떤 일을 행하시려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3] 마른 뼈가 소생하는 새 일(37 장)

마른 뼈들을 본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3 절)

5-6 절(읽음) -> 결과: 뼈들이 이어짐, 힘줄, 살, 살갓.

9 절 -> 생기가 들어가 뼈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로 일어납니다.

이 뼈들은 심판의 결과로 주권과 소망을 상실한 포로 된 이스라엘입니다(11 절). 이들을 장차 귀환시키실 것입니다(12 절). 그리고,

13 절 -> 무덤에서 너희를 이끌어 낼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라고 십니다.

14 절 ->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 아래 두셨지만 그들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가지 조건은 생기(성령)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모르고, 창조의 역질주에 전념했던 마른 뼈와 같은 백성들에 대해 얼마나 아프셨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아픈 마음 속에는 사람의 마음과는 달리 사랑과 긍휼이 피어납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빈번한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말씀 안에서 예수님(하나님)과 나를 알아가는 교회'와 상통합니다. 에스겔서를 통해 하나님의 아픔과 포개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의 아픔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긍휼을 또한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아래의 질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질문과 함께 토의하실 수 있습니다.)

1. 지금 현재 세상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창조의 역질주가 무엇인지, 발견한 바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사람의 일반적인 아픈 마음과는 어떤 차이가 드러납니까? 나는 속상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원망과 분노와 한탄과 같은 감정이 일어날 때도 있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때가 있다면 어느 경우에 각각 그러합니까?